

序 文

天地萬物은 各己 源流가 있다。時代의 變化와 適應의 進化에 따라 生態나 外形은 變할지라도 固有의 源流를 벗어날 수는 없다。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온다。하물며 萬物의 長인 人間에서야 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民族이 있고 氏族이 있고 同胞概念이 成立하는 것도 그르서이다。

新安朱氏淵源은 紀元前千百餘年 中國 周武王時代로 거슬러 오른다。허나 韓國에 始居한 것은 一世祖 朱夫子(諱 熹)의 曾孫 清溪公(諱 潛)이 一二二四年 高麗에 亡命하신데 비롯하니 距今 七百五十七年이 되는 셈이다。

南宋 翰林院太學士인 清溪公이 浮海以東한 것은 南宋朝議가 蒙古侵入에 宥和政策에 기울어 짐을 慨嘆하시고 高麗의 毅然한 抗蒙姿勢를 欽慕하여 高麗와 더불어 祖國의 國權을 回復하려는 愛國衷情대묘이라 傳해지고 있다。當時 麗朝는 蒙古의 朝貢催促을 拒否하고 蒙古兵을 물리친 直後였다。

公은 麗朝의 宰官禮聘을 辭絶하고 高宗을 說得하여 麗宋聯合으로 對蒙牽制를 決心케 하였다。그리고는 塾을 設하고 弟子를 모아 朱子學을 傳授하였다。高麗人의 忠勇을 精神的으로 再武裝하고 麗宋의 文化的一體化를 이룩하려는 것이었다。

性理學이 아니라에 傳來한 嚆矢가 바로 이때이다。朱子性理學은 原則 卽「理」를 밝히고 그 原則이 具現되는 그릇 卽「氣」를 길러 「理와氣의 合致」로 忠孝의 大義를 實現하는 爲人의 哲學이니 「理」에 여기는 忠孝는 참된 忠孝일 수 없거니와 나아가서는 改革을 容認하는 進就的 理論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니 一二三一年—一二五九年의 蒙古三十年戰에 조그만 高麗가 견디낸 것이 性理學에 힘입은바 컸다는 말은 正鵠을 찔렀다 함즉하다。

허나 元朝(蒙古)가 清溪公의 還國을 懇請한데 對해 公이 君子不事二君으로 拒絶하자 麗蒙의 追跡수색이 開始되었거니와 高麗名相 文節公(六世諱 悅) 逝去後부터 朱門은 麗末의 權力

謀畧의犧牲이 되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朝鮮朝建國에 熊城君(十一世諱子精) 安川君(十一世諱仁) 두분의 開國功臣이 계셨으나 王子骨肉亂後에 朱門을 太祖側近이라 해서 太宗以來 朱門不登用이 不文律化하기도 했다. 이리하여 韓半島朱門은 淸溪公渡韓부터 七百年間 試鍊과 逼迫의 連續이었다. 허나 호된 貧窮과 苦難의 渦中에서든 우리 祖先은 子與孫의 性理學的敎育에 온갖 힘을 기울였고 權力과 돈과는 머나먼 處地에서 超然히 신비의 길을 지키는 家範을 形成했다. 이 勉學熱과 家範의 繼承이 우리 家門의 자량이 있다면 이것뿐이다.

性理學에 백리박은 韓國朱門의 家範은 살아있는 사람의 爲人道理 卽 利用厚生(經濟)과 以崇德之(道義)를 가르침이지 宗教的永生을 가르킨 것은 아닌것같다. 그래서 朱門에는 在野의 智性人으로서 官職보다도 學問을, 空文보다도 格物致知로 敎化에 精勵한분이 많거나와 藝體能에 뛰어난 분이냐 佛敎, 基督敎, 大倮敎等 宗教에 歸依하여 훌륭한 業績을 남긴분이 적지 않다. 默默地 社會發展의 밑거름에 滿足한 것으로 보인다.

韓國朱門의 源流는 이렇거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는 源流가 脈脈히 흐르고 있다. 스스로 知覺은 못할지라도 가슴속 깊숙히 간직되고 있는 것이다. 이 源流가 個性을 形成하고 價値觀을 支配한다. 韓國朱門은 高潔 非社交的 短點도 있지만 誠實 創意 開拓 不屈의 情熱 判斷 智能等 長點이 많다고들 일컬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恒常 떳떳한 衿持를 가질수 있었다. 祖先에서 흘러내린 源流가 그렇게 한 것이다.

今般한 漢版大同譜를 刊行하는 것은 巴야흐로 新舊文化의 交叉時代에 있어 朱門後孫이 源流를 再發見하여 自己完成의 原動力으로하고 長點의 伸長과 短點의 補完으로 새 時代의 適應力을 길러 原則의 理念과 現實的方法論을 俱全하므로서 國家社會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많은 後孫이 輩出하기를 冀願하는 마음 간절하기 때문이다. 新安朱氏 男女老少! 모두 大同譜刊行의 意義를 體하고 窮行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一九八一年十一月

晦庵 三十一世孫 源

謹識

第七章 新安朱氏上代韓中合譜

韓國朱門은 一三二四年 清溪公이 中國에서 亡命渡東하시니 비릇한다。 清溪公先系를 알려면 中國朱氏族譜를 상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入手한 中國宗譜(一五一三年版 宗譜)를 그대 로 轉載하여 行列과 排行을 밝힘으로서 中國系 朱氏와의 連關을 뚜렷이 한 것이다。

一、朱氏源流 春秋左氏傳

顓頊帝(B·C二九九九—一〇〇〇代)——倦倬——祝融——陸終——子晏——曹俠(B·C一一一一·周武王이 邾에 封함)——非——成——車輔——將新——訾文——叔術——夏文——儀文克(周平王四十六年B·C七二〇子爵으로 封함)——瑣——文公——蘧蔭——定公——覆且——宣公——榘——悼公——華——莊公——穿——隱公——益——桓公——革——穆公——岳(戰國時代去邑爲姓으로 朱가 됨)——翊(前漢帝大司馬)——寓(漢靈帝時一八〇、黃巾賊亂發生 丹陽으로 避難)——歷十七世——建——歷若干世——敬(隨唐名宰相)——奢(唐玄宗朝學士七一—七五五)——澆(號師古)——瑾唐·馬步軍總拒·封英亭侯·涇溪朱氏始祖 朱子八代祖(朱子先系一世) 瓌(一云諱古僚)新安朱氏始祖 朱子八代祖(朱子先系一世)

二、朱文公紀譜 (中國三回宗譜) 正德八年 (一五一三年) 大明朝版

朱子先系

瓌 一世 朱氏其先吳郡人 中徒歌之黃墩唐 天祐中瓌爲陶雅 偏將一云諱古僚 以兵三千戍婺源 因家焉官制置茶 院是爲茶院卒葬 邑之連同生子廷 僑○年譜以陶雅 命戍婺源民賴以 安

廷僑 二世 字文和按朱子作 茶院朱氏世譜序 云茶院生三子任 南唐補常侍承旨 之號註云今族譜 亦不見然則廷僑 固有兄弟矣生子 昭元

昭元 三世 字致堯生子惟甫 府君生子振

惟甫 四世 字全美舊稱歙溪 府君生子振

振 五世 字文舉舊稱蘆村 府君卒葬邑之三 公均配程氏卒葬 邑之官坑即世所 傳地記當出一賢 人聰明如孔子者 也按韋齋錄曾祖 父作詩後序歙溪 生三男註云曾祖 蘆村府君其季子 也生子絢○(年 譜)三公均乾亥 山丙向官坑庚申 山坎向金斗形標 上穴

絢 六世 字美夫即王橋府 君生子森○(年 譜)已上居婺源 世居婺源

森 七世 字良村隋子松 官閩平贈承事 郎葬政和縣護 國寺側生子三 松禮禪○己上 世居婺源

松 八世 字喬年號韋齋政和八年 同上舍出身授迪功郎建 州政和縣尉調南劍州元 溪縣尉監泉州石井鎮召 試館職除秘書省正字循 左從政郎召對左宣教 郎除秘書省校書郎遷者 作佐郎尚書度支員外郎 兼史館校勘歷司勳吏部 兩曹轉奉議郎又轉承議 郎出知饒州未上請祠主 管台州崇觀卒葬崇安縣 上海里寂歷山中峯之原 贈通議大夫元至正間述 諡獻靖有韋齋集十二卷 生子三伯仲俱天季黨已 下世居建寧

熹 九世 即朱子事宗 詳見年譜及 行狀本傳生 子三塾塾在 公朱文

註「茶院朱氏始祖」

七 瓌先祖則分 黃巢戰亂時以 歙(新安的古號)으로 오셔 오셔가 婺源鎮尉가 되셔고 二後 茶院制 置使(官名)가 되시었다. 因하여 茶院朱氏라함이고 其本實은 新安

